



인천아트플랫폼 2018 1차 <플랫폼 살롱>
(2018.4.24.(화)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개최)

□□ □□□ 2018 □□□□□□□□ <□□□□ □□>□ □□ □□□. □□□ 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,

그 밤을 바라보았다. 그리고 나니 삼이 하나씩 하나씩 지평선에 솟아올랐다.

자크 데리다 (안 뒤푸르 망렐) 1997년 작 < 환대에 대하여 > 동문선 PP 25-26
내가 보기엔 세미나 내내 인간의 문제인 것으로서의 "어디?"라는 물음의 계시에
귀착한다. 이 물음은 스피크스가 제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네, 끈 끈고
있는 한 인간에게 건넨 물음이라는 점이다. 길을 가고 있는 자라는 것 이외엔
고유한 장을 가지지 못한 인간에게.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진 인간에게,
그태도 자기 그림자를 앞장 세워 가고 있는 인간에게. "어디?"라는 물음은
나이가 없고 타동사적 이다. 이 물음은 장소에 대한, 거처에 대한, 무-장소에 대한
관계를 본질적인 것으로서 제기하며, 또한 사유를 대상에 대한 그 내포관계에서
그 기능 자체에 의해 배척한다. 진리라고는 슬래잡기 노래 가운데 뛰어가는 슬래의
진리가 있을 뿐이다. 진리를 발견케 하는 것은 진리의 움직임이고, 진리에게 이름을
붙여 주는 것은 흔적이다.

구나 작가가 필사한 문장들
출처: 인천문화통신 3.0 시민기자 김경옥

□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□, 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
□. 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? □□,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 □
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? 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.



김정모 작가와의 대화
출처: 아트플랫폼 제공

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.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공간에서 살지 않는다.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시간에서 살지 않는다.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사람에서 살지 않는다. <Berlin, street of art 2015>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공간에서 살지 않는다, “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,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공간에서 살지 않는다.”

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.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공간에서 살지 않는다. <Good-Bye>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공간에서 살지 않는다,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공간에서 살지 않는다. LED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공간에서 살지 않는다. <I was here>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공간에서 살지 않는다,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공간에서 살지 않는다.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공간에서 살지 않는다,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공간에서 살지 않는다.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공간에서 살지 않는다,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공간에서 살지 않는다.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공간에서 살지 않는다,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절된 공간에서 살지 않는다.



박문희 작가와의 대화
출처: 아트플랫폼 제공

000 000 0000 000 00, 000 000 0000 000 00. 000 00 0000 00 0000
 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 000 000 0000 000 0 00 0000 00
 0 00. 00 00 0000 00 00 000 000, 0000 000 0 00 000000 00, 00 000
 0 000 000 000 000 000000 00. 00 00 000 00000 000 0 0 000 000 000
 00 00. 00 000000 000 000000 000 000 000 0 00 000. 000 000 0 000
 0 0000 000 00000 000 00000 000 '00' 00000 000 00 00000 0000 000? 0
 00 000 00 00.



모 시라(Mo Sirra), <1000 lamp would not light the sky>
사진출처: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

모 시라(Mo Sirra)는 '1000 lamp would not light the sky'라는 작품을 선보였다. 이 작품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등자를 여러 개의 나무 테이블 위에 배치하여, '1000개의 등자는 하늘을 밝히지 못한다'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. 이 작품은 현대 디자인의 미학과 실용성을 결합한 것으로,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.

이 작품은, 모 시라가 '1000개의 등자'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. 이 작품은 현대 디자인의 미학과 실용성을 결합한 것으로,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.

* 2018 인천문화재단 <인천 문화> 2018년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인천 문화재단, 6월 6일까지

인천 문화재단 홈페이지(www.incheonculture.or.kr)를 방문하여

문의/예약 032-820-3100 또는 032-820-3101
(문의, 예약 <http://expert4you.blog.me/>)